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21일 수요일 음 9월 5일 (12월)

기상정보

흐리고 비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6~17℃, 낮 최고기온은 21~23℃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Table with 4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and precipitation percentages for Jeju, Seongsan, Goseong, and Seokpo.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6:43), 해질 (17:53), and sunset times for Jeju and Goseong.

Table with 4 columns: 내일, 오후, and weather forecasts for Jeju and Goseo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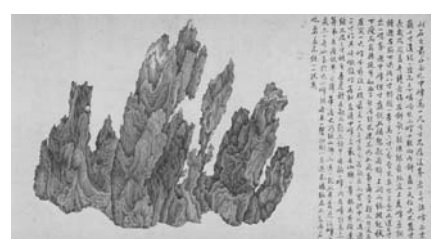
Table with 2 columns: 감기가능지수 and 자외선지수 (UV index) for Jeju and Goseong.

월드뉴스

27m길이 십면영벽도권 850억원에 낙찰

중국 고서화 중 최고가 기록

길이 27m에 이르는 중국 명나라 때 산수화가 경매에서 800억원이 넘는 고가에 팔렸다.



오빈의 '십면영벽도권'.

20일 온라인 매체 핑파이에 따르면 명화 화가 오빈의 '십면영벽도권'이 지난 18일 베이징의 폴리옥션(바오리 경매)에서 5억1290만위안(약 850억원)에 낙찰됐다.

오빈은 격식을 깨고 10개 측면에서 영벽석의 모습을 그렸고 미란종은 문인 친구들을 초대해 제사(題辭)와 발문(跋文)을 쓰도록 했는데 이 작품이 바로 '십면영벽도권'이다.

이는 올해 거러낸 중국 미술품 가운데 최고가이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고서화이기도 하다고 핑파이는 전했다.

이 그림은 1989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21만달러에 팔려 중국 서화 원에서 일했으며 '영벽석'(靈璧石)이 영벽석을 얻은 뒤 손에서 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 오빈을 초칭해 두루마리에 이 돌을 그리도록 했다.

오빈은 만력제 재위 시기 궁정 화원에서 일했으며 '영벽석'(靈璧石)이 영벽석을 얻은 뒤 손에서 떼지 않을 정도로 너무 좋아해 오빈을 초칭해 두루마리에 이 돌을 그리도록 했다.

신중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소더비 등 유명 경매 업체는 온라인으로 경매를 진행하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오프라인 경매가 열리고 있다.

한리일보 Jeju Halla Park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phone, fax, and website details.

건강&생활



김연덕 제주성모안과 원장

외래 진료를 보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 다양한 경우의 각막 외상 환자를 만난다. 각막은 검은 눈동자 부분에 있는 가장 바깥쪽 안구의 표면이다.

각막 상피 찰과상 및 외상 후 반복 각막 찰과상, 외상 후 반복 각막 찰과상, 외상 후 반복 각막 찰과상, 외상 후 반복 각막 찰과상.

각막 외상 열전(列傳)

주사 바늘 끝으로 녹이 침투한 조직을 긁어내야 하는 일도 종종 있다. 세균 감염이 동반되면 조직을 제거한 뒤 항생제 안약을 쓴다.

각막 상피 찰과상 및 외상 후 반복 각막 찰과상="고사리를 꺾으려다 눈을 찔렸어요." "꿈을 따라 나뭇가지에 다쳤어요." 각막 상피에 비교적 가벼운 찰과상을 입는 경우다.

각막 열상="뉘시하다 바늘에 찔렸어요." "넘어졌는데 눈이 찌렸어요." 각막이 전층으로 찢어져 급히 봉합해야 하는 경우다.

기 전에 안연고를 사용하고 인공눈물을 자주 넣어 재발을 막는다.

각막 열상="뉘시하다 바늘에 찔렸어요." "넘어졌는데 눈이 찌렸어요." 각막이 전층으로 찢어져 급히 봉합해야 하는 경우다.

시력이 많이 떨어진다. 전층으로 찢어지지 않고 전방수가 새어 나오지 않을 때는 치료용 콘택트렌즈와 항생제 안약만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이런 안과적 외상은 찰나의 상황에 발생하기 때문에, 공사장이나 과수원에서 작업할 때에는 불편하더라도 작업용 보안경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화장실 청소나 빨래 같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보호장구를 챙기는 것은 쉽지 않지만, 사고는 예기치 못할 때 일어나니 방어진인 태도로 안전을 기하는 것이 최선이다.

열린마당

화양연화, 내 삶에 가장 행복한 순간



허상수 전 성공회대 교수

김 화백은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새로운 삶의 세계를 개척하는 마음으로 일생 동안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그려냈다.

우리가 만난 건 벌써 반세기가 지났다. 그렇지만 처음 그의 그림에 주목했던 건 산호에서 대학 졸업 기념 개인전을 열 때였다.

지금, 여기, 익어가는 배움



최진예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은빛여새가 사방에서 손짓하며 유혹하는 바야흐로 '단풍의 계절' 가을이다. '단풍'은 봄의 파릇함과 여름의 싱싱한 생명력을 지나 나뭇잎이 모두 떨어져 또 다른 봄을 기다리는 겨울 전, 짧은 가을에만 즐길 수 있어 더욱 빛이 난다.

'가을'의 '단풍'처럼 우리를 중장년층에게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쌓아온 지식과 경험이라는 자산이 있다.

배우고 싶은 것만을 공부하는 집에서 '행복한 배움'이라 할 수 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제주도의 신중년(40~50대) 인구는 23만255명으로 도 전체인구 69만6657명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정보화로 인한 신중년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Never too late', 늦은 것은 하나도 없다. 인간은 배움을 멈출 때 늙는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고 여기가 가장 좋은 배움의 장소이다.

Jeju Halla Park advertisement for domestic products, listing various items like winter truffles and honey.

Hanlim Jeongmyo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and wheat.

Jeju Halla Park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and wheat.

Jeju Halla Park advertisement for agricultural products, listing various types of rice and wheat.